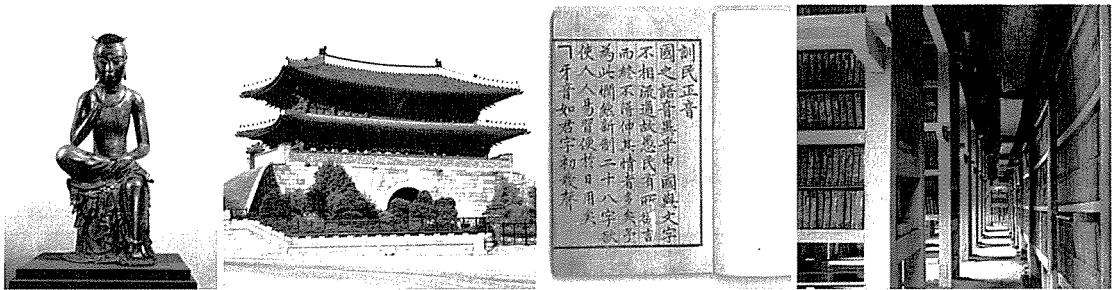


# 한국의 국보문화재

권병욱 칼럼리스트



## 국보란 무엇인가?

문화재라 하면 흔히 탑이나 고분, 도자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재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 것에서부터, 판소리·탈춤 등과 같이 무형적인 것들도 있다. 그리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념물', '민속자료'라 하여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즉, 문화재란 유·무형의 문화재 뿐만 아니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는 그 가치정도에 국가, 시·도가 주체가 되어 지정하기도 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치가 있어 기록,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 의해 지정된 경우에도 다시 국보, 보물, 사적(史蹟),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규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보 제 1호는 숭례문(崇禮門, 남대문)이고, 보물 제 1호는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이다. 같은 성문(城門)이고 규모나 구조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1395년에 세워진 남대문이 1396년에 세워진 동대문보다 건축연도가 빠르고, 또 남대문이 갖는 정문으로서

의 의의와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국보(國寶)란 보물(寶物)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제작기술이 우수하여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308건의 국보, 1,420건의 보물이 지정돼 있다.

국보 1호인 남대문을 필두로 2005년 '보물 제 48호'에서 '국보 제 308호'로 등재된 전남 해남 대흥사의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등이 '국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국보문화재들

우리나라는 일찍이 그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왔듯, 국보문화재란 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 왔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보문화재로는 석굴암(국보 24호), 해인사 장경판전(52호), 창덕궁(225호) 등이 있고,

국보란 한 번 고치거나 훼손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국보문화재를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70호), 조선왕조실록(151호), 승정원일기(303호)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승례문’은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동·서·남·북 4대문 중에서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남대문(南大門)’이라고 불렸다. 이 도성은 동대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건축기술면에서도 다포양식의 뛰어난 수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승례문은 조선왕조 개창과 더불어 4대문으로서 정문이자 대문(大門)이었고, 조선건축술의 총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상징적 의미에서 ‘국보 제 1호’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 제 32호인 ‘해인사대장경판’은 현종 때 의천이 만든 초조대장경이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고종 24~35년(1237~1248)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대장경판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내용도 완벽하다. 그 구성을 보면 모두 1,496종 6,568권으로 수천만 개의 글자 하나 하나가 오자·탈자가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세계인들로부터 ‘목판인쇄술의 극치’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 제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출토지 및 제작연대를 알 수가 없으나 삼국시대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반가상은 균형잡힌 신체 및 정교하게 조각된 눈·코·입의 표현 뿐만 아니라 반가상의 잔잔한 미소에서 종교조각으로서의 숭고미를 더하고 있다.

이 금동불은 주조기법과 제조기술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이 기술은 ‘일본 국보 1호’인 고류지(廣隆寺)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신라시대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경주 석굴암, 글자 자체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문자 창제

의 주체 및 창제원리와 과정이 책자로 남아 있는 훈민정음, 국보로서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된 직지심체요절(현 프랑스 국립 루브르 박물관 소재) 등이 우리 문화를 세계에 드날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보문화재이다.

### 국보문화재 논란에 대하여

최근 국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국보 제 1호를 승례문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승례문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조선 고적(古蹟) 제 1호’라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승례문은 국보 1호로서의 상징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 1호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승례문의 대안으로 훈민정음, 석굴암,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국보를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보 체계가 정비된 때는 1962년, 국보와 관련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었다. 그 때마다 “문화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보를 재지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혼란과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인지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국보·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실로 국보란 한 번 고치거나 훼손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보문화재를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